

(제2편) 베트남의 쌀산업 동향 및 관련 정책

김정호*

1. 머리말

베트남의 쌀은 생산량 세계 5위에 수출량 3위로서, 국민의 기본식량인 동시에 국가의 중요한 수출산업이다. 2019년 현재 농가의 약 8할이 쌀 생산에 종사하고 있으며,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138kg(정곡 환산)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2배나 된다. 쌀을 껌(com)이라고 부르며, 국민들은 대부분 찐 흰 쌀밥인 껌짱(Com Trang)을 먹는다. 또한 쌀국수인 페(pho)는 식당뿐만 아니라 베트남 전역에서 볼 수 있는 길거리 음식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베트남을 ‘안남(安南)’으로 칭한데 유래하여 안남미라고 불리는 인디카쌀(Indica Rice)을 주로 생산하는데, 최근에는 한국과 일본을 겨냥한 수출용으로 장립종 쌀의 생산을 늘려나가고 있다. 쌀 생산은 주로 남부의 메콩 삼각주 지역과 북부의 홍하 삼각주 지역에서 이루어진다. 양 삼각주 지역 이외에서는 대체로 농가들이 자급용으로 쌀을 재배한다. 그리고 북부 지역에서는 2기작 재배이고, 남부 지역에서는 3기작으로 재배된다.

1975년 베트남 전쟁이 종료된 후 농업생산이 회복되어 쌀 생산도 증가하였으며, 특히 1988년 집단농장 생산체제가 종료되면서 생산이 더욱 빠르게 증가하고 본격적으로 수출이 개시되었다. 2012년에는 최대 쌀 수출국인 태국을 앞지르기도 하였으나, 그 후 태국이 수출가격을 낮추면서 상대적으로 수출액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베트남은 전략적으로 쌀 수출을 꾸준히 증가시켜 2020년 수출 실적은 621만 톤(30억 달러)을 기록하였다.

한편, 베트남은 농업생산 기반이 취약하여 자연재해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실정이며, 2018년에는 우리나라가 태풍 피해가 큰 베트남 중남부 지역에 쌀 1만 톤을 원조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2021년 1월에는 인도에서 쌀을 수입하

* KREI 시니어이코노미스트, kreikjh@naver.com

였는데, 이는 2020년 코로나19 영향으로 국제 쌀 수출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도산 쌀을 수입하여 내수용으로 사용하게 된 것이다.

이 글에서는 베트남의 쌀 생산과 수출 동향 및 관련 정책을 정리하여 소개한다. 소절로 쌀 생산과 국제적 지위, 쌀 유통과 가격 및 수출 동향, 최근의 쌀정책 주요내용 등의 순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다만, 관련 자료의 한계 때문에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널리 양해를 바란다.

2. 쌀 생산 동향과 국제적 지위¹⁾

2.1. 쌀 생산의 동향

베트남에서 재배되는 쌀의 주종은 ‘안남미(安南米)’라고 불리는 인디카쌀(Indica Rice)인데, 종자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여러 품종이 혼합되어 있다.

중단립종인 자포니카쌀(Japonica Rice)은 1990년경에 ‘메콩델타 벼연구소’에서 일본 품종으로 시험재배를 실시하여 보급되었다. 최근에는 수출용으로 고급 향미(香米)인 자스민쌀(Jasmine Rice)의 재배가 늘어나고 있다.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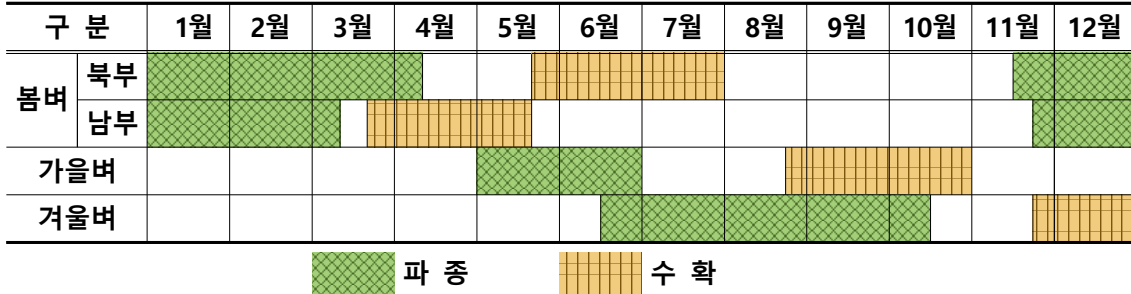
베트남의 벼농사는 수확 시기를 기준으로 봄벼, 가을벼, 겨울벼로 구분할 수 있다. 봄벼는 건기(Dry season)에 재배되므로 품질이 가장 우수하고 생산량 또한 가장 많다 이에 비하여 가을벼는 우기(Rainy season)에 재배되므로 강수량 과다에 따른 침수 피해를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일조량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봄벼에 비하여 쌀 품질이 떨어지는 편이다.

벼농사는 건기와 우기의 생산 방식이 다르다. 우기에는 비가 자주 오기 때문에 이앙재배(Transplanting rice)를 택하고, 비가 자주 오지 않는 건기에는 건답직파재배(Dry direct seeded rice)를 택하게 된다. 또한 건기에는 이앙 시에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볍씨를 발아시켜서 논에 뿌리는 발아산파재배(Pre-germinated direct seeded rice)를 하기도 한다.

1) 이 절의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간한 『해외농업시리즈 22, 베트남』(2019년)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조사자료(베트남 쌀 생산 유통 현황, 2015년)를 토대로 인터넷 등에서 보완자료를 정리하였다.

2) 쌀은 쌀알 모양과 재배지역에 따라 인디카(indica), 자포니카(japonica), 자바니카(javanica)의 3가지로 분류되는데 자바니카는 인디카와 유사하므로 일반적으로는 인디카와 자포니카로 나눈다. 인디카는 장립종이고 자포니카는 중단립종이며,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쌀은 자포니카에 속한다. 인디카종은 찰기가 없는 쌀로 전세계 쌀 생산량의 90%를 차지하며, 그 중에 향미(香米)는 장립종으로 향긋한 냄새를 내는 자스민쌀(Jasmine Rice)로 불린다.(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그림 1> 베트남의 벼 재배 시기



자료: FAO.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조사자료(2015)에서 재인용.

벼 재배면적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봄-가을-겨울 작형을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2013년에 790만ha 수준까지 증가하였으나, 그 후 감소세로 전환되어 2018년에는 757만ha를 기록하였다. 그리고 쌀 생산량은 단수와 기상 조건 등의 영향도 있어서 추세적으로 보면 2015년에 4,509만 톤까지 증가하였으나, 그 후 감소세로 바뀌어 2018년에는 4,398만 톤을 기록하였다. 2018년 작기별 생산량을 보면, 봄 작형이 2,060만 톤(46.8%), 가을 작형이 1,511만 톤(34.4%), 겨울 작형이 826만 톤(18.8%) 등의 순이다.

<표 1> 베트남의 벼 재배면적과 생산량 동향(2005~2018년)

단위: 천 ha, 천 톤

연도	재배면적				생산량			
	소계	봄 작형	가을 작형	겨울 작형	소계	봄 작형	가을 작형	겨울 작형
2005	7,329	2,942	2,349	2,038	35,833	17,332	10,436	8,065
2006	7,325	2,996	2,317	2,012	35,850	17,588	9,694	8,567
2007	7,207	2,988	2,204	2,016	35,943	17,024	10,141	8,778
2008	7,400	3,013	2,369	2,018	38,730	18,327	11,396	9,007
2009	7,437	3,061	2,358	2,018	38,950	18,696	11,212	9,042
2010	7,489	3,086	2,436	1,968	40,006	19,217	11,686	9,103
2011	7,655	3,097	2,590	1,969	42,399	19,778	13,403	9,217
2012	7,761	3,124	2,659	1,978	43,738	20,292	13,958	9,488
2013	7,903	3,106	2,811	1,986	44,039	20,070	14,623	9,346
2014	7,816	3,117	2,734	1,966	44,975	20,851	14,479	9,645
2015	7,828	3,168	2,869	1,791	45,091	21,092	15,341	8,658
2016	7,737	3,129	2,873	1,735	43,165	19,647	15,232	8,286
2017	7,705	3,117	2,877	1,711	42,739	19,416	15,461	7,862
2018	7,570	3,102	2,785	1,683	43,979	20,603	15,111	8,265

자료: 베트남 통계청.

2.2. 쌀 생산의 지역 분포

베트남의 쌀농업은 주로 북부의 홍강 삼각주(Red River Delta) 지역과 남부의 메콩강 삼각주(Mekong River Delta) 지역이 중심이다. 특히 메콩강 하류의 삼각주 지역은 상류에서 운반된 비옥한 토양에 고온과 일조량 등 유리한 기후조건으로 벼 생장기간이 100일에 불과하여 2~3기작이 가능하다. 그리고 중부 산간지역에는 계단식 논이 잘 가꾸어진 농촌경관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벼 재배면적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메콩강 삼각주 지역이 가장 많아 2018년 411만ha를 기록하였으며, 이 지역은 벼 재배면적이 계속 늘어나 2010년 대비 4.1%나 증가하였다. 그 다음은 북중 지역 및 중앙 해안지역으로 2018년 123만ha이며, 이 지역도 미미하나마 1% 남짓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다음으로, 홍강 삼각주 지역은 2018년 재배면적이 104만ha로서 2010년에 비해서는 약 9% 감소하였다.

<그림 2> 베트남의 벼 재배지역 분포 및 벼농사 전경



자료: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 사진은 네이버 이미지에서 캡처.

쌀 생산량은 2018년 기준으로 메콩삼각주 지역 2,444만 톤(55.6%), 북중 및 중앙 해안 지역 706만 톤(16.1%), 홍강삼각주 지역 629만 톤(14.3%), 북부 중산간 지역 338만 톤(7.7%), 남동부 지역 142만 톤(3.2%), 중앙 고원 지역 137만 톤(3.1%) 등의 순으로 분포하고 있다.

〈표 2〉 베트남의 지역별 벼 재배면적 동향(2010~2018년)

단위: 천 ha

구분	2010	2015	2016	2017	2018
전체	7,489	7,828	7,737	7,705	7,570
홍강 삼각주	1,150	1,111	1,094	1,071	1,041
북부 중산간 지역	666	684	683	680	672
북중 및 중앙 해안 지역	1,214	1,221	1,215	1,253	1,234
중앙 고원지역	218	238	233	243	245
남동부 지역	295	273	270	272	271
메콩강 삼각주	3,946	4,302	4,241	4,185	4,107

자료: 베트남 통계청.

〈표 3〉 베트남의 지역별 쌀 생산량 동향(2010~2018년)

단위: 천 톤

구분	2010	2015	2016	2017	2018
전체	40,006	45,091	43,165	42,739	43,979
홍강 삼각주	6,805	6,730	6,545	6,083	6,292
북부 중산간 지역	3,088	3,337	3,406	3,336	3,384
북중 및 중앙 해안 지역	6,152	6,855	6,842	6,998	7,063
중앙 고원지역	1,042	1,210	1,174	1,316	1,376
남동부 지역	1,323	1,376	1,367	1,397	1,423
메콩강 삼각주	21,596	25,584	23,831	23,609	24,442

자료: 베트남 통계청.

2.3. 베트남 쌀의 국제적 지위

베트남의 쌀은 2019년 기준으로 생산량은 세계 5위이고 수출량은 제3위 수준이다. 2019년 기준 쌀 생산량의 세계 순위를 보면, 1위가 중국(2억 1천만 톤)이고 2위가 인도(1억 7천만 톤)로서 단연 우위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인도네시아와 방글라데시가 5천만 톤 수준, 그리고 베트남이 4천만 톤 수준이다. 중국,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등은 베트남보다 생산량은 많으나, 국내 소비용으로 생산하므로 수출량은 미미한 수준이다.

참고로, 미국은 세계 5위의 쌀 수출국이며, 2019년 기준으로 조곡 837만 6,720톤을 생산하여 정곡 12억 1,026만 달러를 수출하였다.

〈표 4〉 세계 쌀 생산국 순위(조곡, 2019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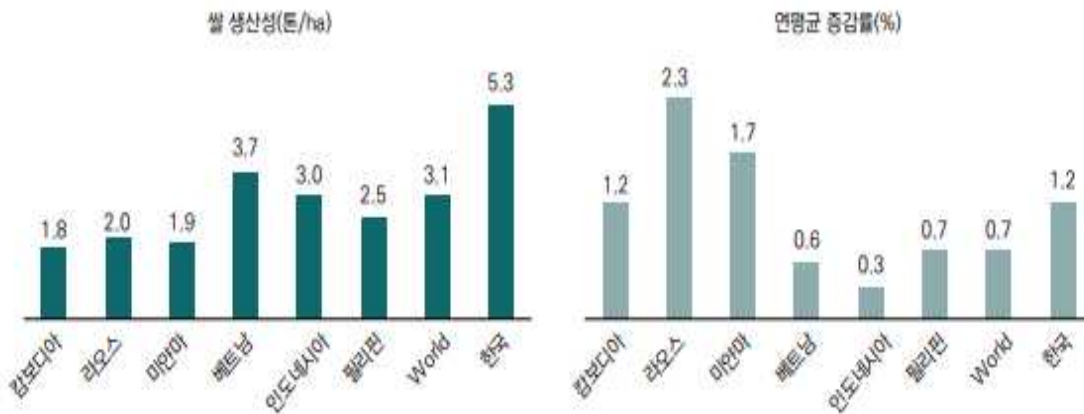
순위	국명	생산량 (톤)	수출액 (1000US\$)
1	중화인민공화국	211,405,211	941,720
2	인도	177,645,000	6,616,848
3	인도네시아	54,604,033	494
4	방글라데시	54,586,344	8,182
5	베트남	43,448,504	2,163,697
6	태국	28,356,869	3,741,849
7	미얀마	26,269,814	-
8	필리핀	18,814,827	390
9	파키스탄	11,115,428	1,780,991
10	캄보디아	10,886,000	415,333

주: 생산량은 조곡, 수출액은 정곡 기준.

자료 : FAO, FAOSTAT - Production, Crops, Rice, Paddy, 2019.

다음으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쌀 생산성(단수)을 2018년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베트남의 ha당 생산량이 3.7톤으로 가장 높으며, 나머지 국가들의 쌀 생산성은 전 세계 평균 생산성(ha당 3.1톤)보다 낮다. 예컨대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등의 쌀 생산성은 ha당 2톤 미만의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매년 생산성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그림 3〉 동남아 국가의 쌀 생산성 비교(2018년 기준)



주: 1) 쌀 생산성은 2018년 기준(한국은 2017년 기준).

2)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쌀 생산성의 연평균 증감률(한국은 2010~2017년)

자료: 김종선 외(2019)에서 인용

한편, 베트남 브랜드쌀은 국제시장에서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진다. 2019년 11월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제11회 국제쌀무역회의’에서 ‘국제쌀콩쿠르’도 함께 열렸는데, 여기서 베트남의 고품질 향미(香米)

‘ST25’가 태국과 캄보디아 쌀을 누르고 처음으로 최우수상에 선정되었다. 국제쌀콩쿠르는 세계 각국의 요리사들이 밥을 짓기 전 쌀의 감촉과 지은 후의 맛으로 품질을 평가하는 대회이다.

<그림 4> 세계 쌀 콩쿠르 실적 (2009~2019년)



자료: 베트남 농업농촌부(Ministry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3. 쌀의 유통 및 수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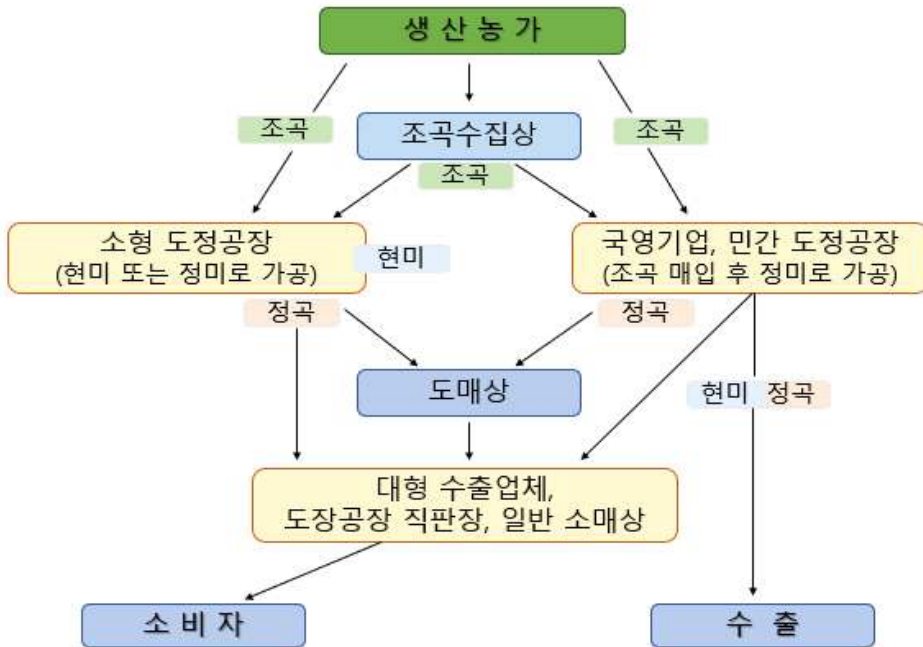
3.1. 쌀의 유통 경로와 소비 형태³⁾

베트남의 국내 쌀 유통을 살펴보면, 생산부터 소비까지 많은 유통경로가 존재하며, 그 경로마다 유통마진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쌀 가공이 반가공(조곡→현미)과 정미가공(현미→백미)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렇게 다단계의 유통 과정이 정미 기술에 대한 투자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이러한 유통 과정에서 10% 정도의 쌀이 손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다수의 농가가 자체적으로 저장 창고 및 건조 시설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수확한 직후에 조곡(산물벼) 상태로 산지수집상이나 도정업체 또는 국영기업 등에 판매하게 된다.

3) 이 절의 내용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조사자료(베트남 쌀 생산유통 현황, 2015년)를 기초로 인터넷 등에서 보완자료를 정리하였다.

<그림 5> 베트남의 쌀 유통경로



자료: aT 자료(2019)를 기초로 저자 작성

따라서 쌀농가에서 생산된 벼는 산지의 인근 소규모 도정공장에 조곡으로 판매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포장 단위는 50kg이고, 판매 단위는 100kg~1톤이다. 그리고 산지의 도정공장은 현미 또는 정미로 1차 가공하여 대규모 도정공장 및 수출업체에 판매하게 된다. 그 후 2차 가공 및 최종 포장하여 내수 판매하며, 수출용은 국영기업이나 민간 도정공장에서 현미 또는 정미로 가공하여 수출업체에 인도하게 된다.

쌀 주산지인 메콩델타 지역의 도정공장은 대략 세 가지 형태가 존재하는데, ① 100% 국영, ② 지방성·개인·VINAFOOD(국영기업) 합작, ③ 지방성·개인 합작 등으로 나뉘어진다.

쌀의 소비 동향을 보면, 인구 증가에 따라 전체 쌀 소비량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농업농촌개발부(MARD) 통계에 의하면, 2019년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약 138kg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대체식품 수요 증가에 따라 쌀 소비가 둔화되고 있으며, 특히 도시 지역의 쌀 소비가 빠르게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현지 시장에서는 다양한 산지브랜드의 쌀이 유통되고 있다. 최근에 소비자의 인기가 많은 산지브랜드로 ‘하이하우’ (Hai Hau, Nam Dinh성)와 ‘생꾸’ (Seng Cu, Dien Bien성)가 알려지며, 그 밖의 지역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쌀이 산지브랜드로 판매되고 있다. 따라서 전통시장에서는 산지별로 쌀값의

차이가 크며, 또한 쌀ara기의 함유량이 많을수록 값이 저렴한 편이다. 전통시장에서 판매되는 장립종 일반미 가격이 대략 1kg에 15,000동(đồng, VND)인데 한화로 환산하여 800원 수준인 셈이다.

한편, 중단립종 쌀(Japonica rice)은 주로 일본 품종을 들여와 재배한 쌀로서 역시 산지브랜드로 판매되고 있다. BigC, Vinmart, 롯데마트 등 모든 슈퍼마켓에서 중단립종 쌀을 판매하고 있는데, 일본 품종 쌀의 판매가격은 일반장립종 브랜드쌀보다 거의 2배 정도로 비싸기 때문에 도시의 중류층 소비자들이 구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림 6> 베트남 상점에 진열된 쌀

전통시장



슈퍼마켓



자료: 네이버 사진자료에서 캡처.

베트남은 전통적으로 쌀을 이용한 요리나 가공식품이 다양하게 발달한 나라이다. 쌀을 껌(com)이라고 부르는데, 주식으로 흰쌀밥인 껌짱(Com Trang)을 먹는다. 또한 쌀로 빵이나 떡 또는 국수를 만들어 먹으며, 찹쌀이나 향미는 다른 재료와 혼합하여 여러 가지 요리를 즐길 수 있다. 이하에서 베트남의 쌀 식품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한다.⁴⁾

껌짱(Com Trang)은 증기로 찐 흰쌀밥을 말하며, 보통 사람들이 주식으로 먹는다. 식당에서는 껌판(Com Phan)이라는 쌀밥정식을 먹을 수 있는데, 보통 흰밥과 생선조림, 계란, 야채, 국, 그리고 약간의 요리를 조금씩 곁들여 먹는 베트남 정식이다. 또한 덮밥류도 식당에서 간편한 아침식사로 즐겨 먹으며, 볶음밥인 껌찌엔(Com Chien)도 쉽게 먹을 수 있다.

반짱(Banh Trang)은 라이스페이퍼라 불리는 쌀피이다. 반짱은 쌀가루를 물에 넣고 걸쭉하게 끓여낸 후 그 쌀물을 종이처럼 펴서 햇볕에 말린 것이다. 대나무판에 붙여서 말리므로 대나무살 체크무늬가 새겨진다. 이렇게 만든 반

4) 이 내용은 [네이버 지식백과] 베트남 (그랑 라투스 요리백과)에서 인용하여 편집하였다.

짬은 다른 음식을 싸서 먹는데 이용하며, 반투명하기 때문에 음식재료의 색깔이 나타나기도 한다. 반짬을 이용한 대표적인 요리로는 흔히 월남쌈이라고 불리는 고이꾸온(Goi Cuon)과 스프링롤인 짜조(Cha Gio) 등이 있다.

차오(chao)는 묽은 쌀죽으로 가장 대중적으로 즐겨먹는 수프이다. 물과 쌀을 기본 재료로 끓이는 미음과 비슷한 차오는 담백하고 먹기 쉬우므로 환자들을 위한 식사로 적합하다. 또한 닭 육수 등으로 끓인 수프에는 상추, 숙주나물, 민트, 고수, 쪽파 등을 넣어 먹는다.

퍼(Pho)는 사골을 우린 국물에 쌀로 만든 국수를 넣고 요리한 국수이다. ‘퍼’라는 이름은 쌀국수를 말하는 것이며, 재료가 되는 고기의 종류에 따라 퍼보(쇠고기 쌀국수), 퍼헤오(돼지고기 쌀국수), 퍼가(닭고기 쌀국수) 등의 이름이 붙는다. 베트남 북부지역이 퍼의 본고장으로 알려진다.

쏘이(Xoi)는 찹쌀밥이다. 쏘이는 식당에서 주문하여 바나나잎 또는 스티로폼 도시락에 싸서 가져가는 것이 일반적이며, 바로 식당에서 앉아 먹기도 한다. 쏘이의 색깔은 보통 흰색이지만, 다른 재료와 함께 찌었을 때는 다른 색깔을 띤다. 예를 들면 녹두를 넣고 찐 찹쌀밥은 초록빛이 난다.

반미(Banh Mi)라고 불리는 쌀빵은 서구식 바게트처럼 딱딱하고 모양도 유사하지만 쌀맛이 진하다. 쌀빵을 그대로 떼어서 고소하게 먹어도 좋고, 빵안에 햄, 돼지머리, 야채, 고기, 양념을 넣어 먹기도 한다. 베트남 거리에서는 이렇게 반미를 만들어주는 가판대가 많이 있다.

3.2. 쌀 수출제도 및 수출가격 동향⁵⁾

베트남의 쌀 수출실적은 해마다 순위가 조금씩 다른데, 금액 기준으로 2018년에는 세계 3위, 2019년에는 4위를 기록하였다. 2019년 수출액은 약 14억 달러로서, 이는 세계 쌀 수출시장의 6.6% 수준이다.

베트남 정부는 쌀 수출을 장려하기 위하여 1990년대부터 수출할당 제도를 유지하면서 점차 규제를 완화하였다. 현재 규정에는 정부 간 계약 수출쌀 중에서 20%는 계약사무를 행한 수출업자 스스로가 수출하지만, 나머지 80%는 쌀수출업자의 업계단체인 베트남식량협회가 참가업자로 물량을 할당받아 수출하고 있다.

베트남식량협회는 1989년에 식량무역을 하던 수출업자들이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결성한 단체인데, 현재 실제로는 정책을 대행(시장동향 파악, 업자감

5) 이 절의 내용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급관리처 조사자료(2021년 1월 국제 쌀시장 동향(2021.1.))를 기초로 井上 莊太朗(2018) 등에서 보완하여 정리하였다.

독 등)하는 준정부기관이다. 이렇게 국내유통의 비효율적인 제도 때문에 베트남에서는 고급미의 생산 및 수출에 시장원리가 작동하지 않는 구조로 되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이다.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MARD)는 2018년에 쌀의 국가브랜드 “Gao vietnam (베트남 쌀)”의 이용규칙을 공포했다. 정부는 세계 시장에서의 베트남쌀의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수출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수단으로 브랜드의 확립을 서두르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국가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개인이나 조직에 대하여 ‘사업등록증, 기업등록증, 투자증명서 중 하나를 가진 사업자’ 라고 명시하였다. 그리고 관할 기관으로부터 쌀 가공·보관·거래에 관한 식품안전증서를 받거나 또는 HACCP, ISO22000, IFS 등과 같은 국제식품규격 중 하나를 부여받도록 의무화하였다. 여기에 환경보전 의무와 납세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베트남 규격(TCVN)에 적합한 쌀이라는 증명서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쌀 생산에 대한 수출 비중을 보면, 베트남은 2019년산으로 4,300만 톤을 생산하여 그 중 630만 톤을 수출함으로써 대략 국내 생산의 약 15%를 수출하고 있는 셈이다. 과거에 국제 쌀값이 급등한 2008년 이후에는 수출량의 증가에 따라 생산에 대한 비율도 늘어나 2011년에 28% 수준을 기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 이외의 국가에 비해서는 수출 비중이 낮은 수준이며, 그 후 수출 비중은 조금씩 하락하는 추세이다.

베트남 장립종 쌀의 수출가격은 정부의 수출진흥 정책에 따라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수출가격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데, 그 배경으로는 겨울-봄 작기의 신곡 수확이 시작되기 전까지 공급량이 충분하지 않은 반면에, 필리핀의 수입 수요가 일정하기 때문이다.

<그림 7> 베트남의 최근 쌀 생산 및 수출 동향(2017~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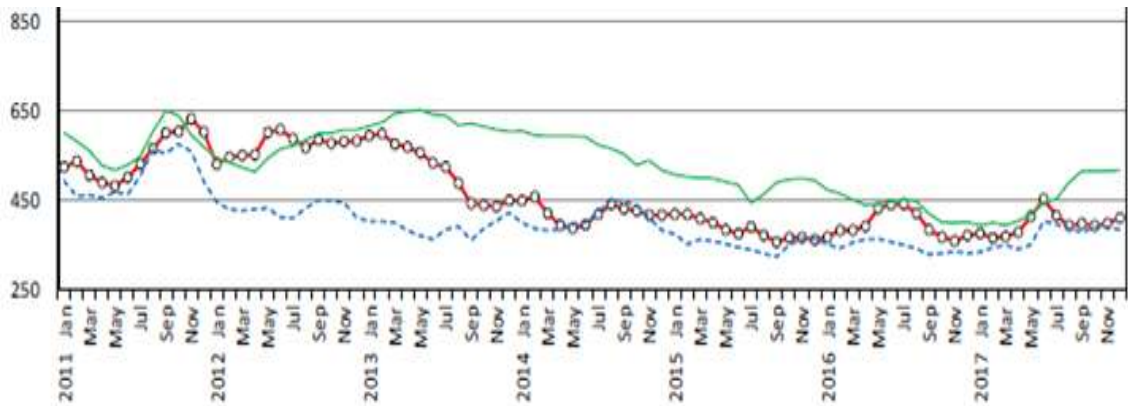


자료: aT 수급관리처, 2021년 1월 국제 쌀 시장 동향(202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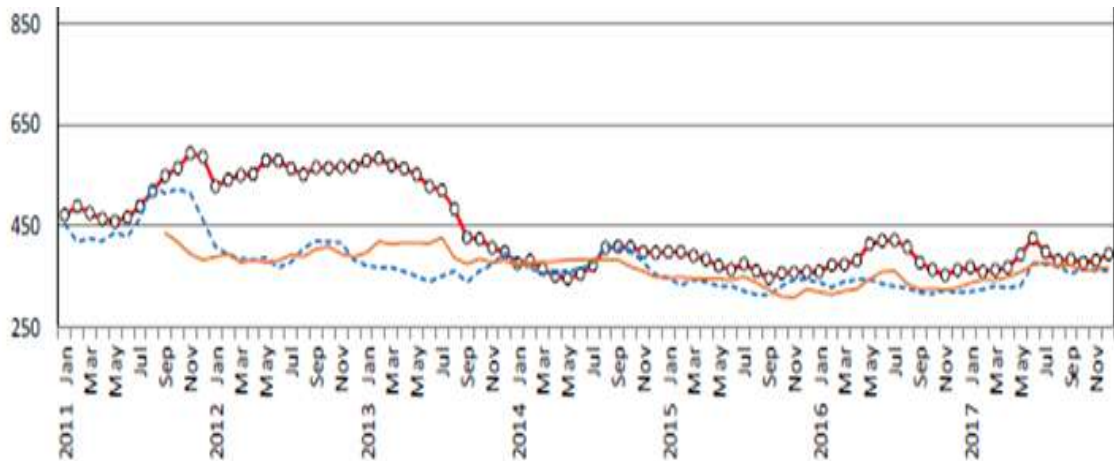
2011년 이후의 쌀 수출가격을 보면, 상급미(White Long Grain Rice 5% broken)는 쉐미(싸라기)의 비율이 최대 5% 정도를 포함하는 쌀이며, 최근의 국제시장 가격은 정곡 1톤 당 대략 450달러 수준에서 변동하고 있다. 베트남산 상급미 가격은 2013년 상반기에 650달러 수준까지 상승했다가 하락세로 반전되어 2017년 초에 380달러까지 하락한 후 다시 상승세이며, 대체로 태국산이나 미국산 쌀보다 높은 가격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저급미(White Long Grain Rice 25% broken)는 쉐미의 비율이 최대 25%까지 포함하므로 가격이 낮은 수준이며, 최근의 국제시장 가격은 정곡 1톤 당 대략 400달러 수준에서 변동하고 있다. 베트남산 저급미는 2013년까지 태국산과 비교하여 대략 톤당 100달러 정도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었으나, 2016년 이후 톤 당 350달러 수준에서 점점 상승하여 태국산이나 인도산과 비슷한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그림 8> 베트남과 경쟁국의 쌀 종류별 수출가격 추이(2011~2017년, 정곡 US\$/톤)



주: 실선은 베트남쌀(쉐미 5%), 굵은선은 태국쌀(쉐미 5%), 점선은 미국쌀(쉐미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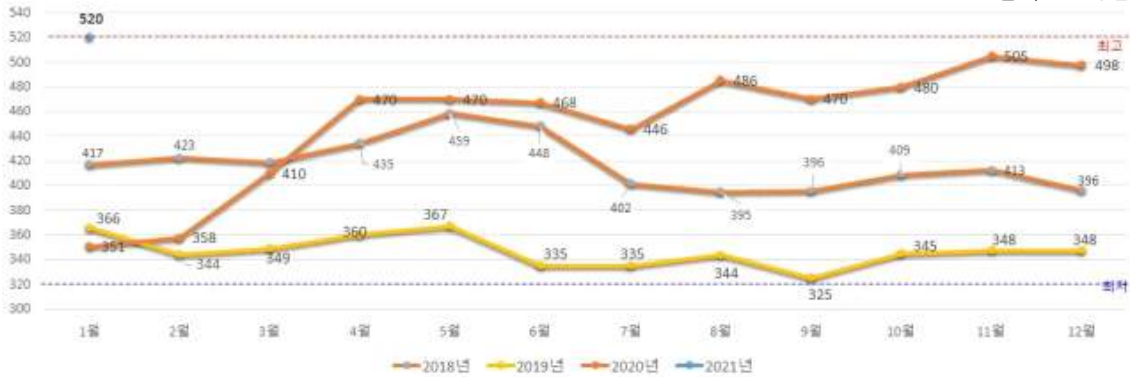


주: 실선은 베트남쌀(쉐미 25%), 굵은선은 태국쌀(쉐미 25%), 점선은 인도쌀(쉐미 25%)

자료: FAO Rice Price Update, 井上 莊太郎(2018)에서 재인용.

<그림 9> 베트남 쌀의 월별 수출가격 동향(2018~2020년)

단위: US\$/톤



주: Creed Rice (베트남산 장립종 5% 등급, FOB 기준) 월 평균가격
 자료: aT 수급관리처, 2021년 1월 국제 쌀시장 동향(2021.1).

2020년 들어 베트남의 쌀 수출은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일시적인 감소를 나타내고 있다. 베트남식량협회(VFA)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11월까지 쌀 수출량은 570만 톤으로 작년 대비 3% 하락했지만, 수출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수익은 28억 8천만 달러에 달하여 작년 대비 9.7% 증가하였다. 쌀 수출량은 전년 동기 대비 3.3% 감소하였으나, 수출액은 12.8% 상승했으며, 수출가격 또한 16.7% 상승하였다.

베트남의 2020년 쌀 수출시장 1위는 필리핀으로, 수출량은 194만 톤이고 금액으로는 총액 9억 1천 16만 달러에 달하여 전체 수출량의 34%를 차지하였다. 또한 전년 동월 대비 수출 규모는 1.7% 감소하였고, 수출액은 11.8% 증가하였다. 2020년 베트남 쌀 수출량이 크게 증가한 시장으로는 인도네시아 181%, 호주 58.2%, EU 23% 등이며, 반면에 이라크 -65.6%, 홍콩 -24.7%, 세네갈 -32.5% 등 일부 시장에 대한 쌀 수출은 크게 감소하였다.

베트남의 2020/21년 쌀 생산량은 전년 대비 0.4% 증가한 2,710만 톤으로 추정된다. 이는 생산단수도 증가 추세이며, 쌀가격고시제에 따라 겨울-봄 작기 파종면적도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2020/21년 쌀 수출량은 전년과 동일한 630만 톤으로 추정된다. 베트남은 최근 미국에 자스민쌀을 판매하기 시작했으나, 자스민쌀의 주 수출국인 태국에 비해서는 적은 양이다.

중장기적으로 베트남 정부는 2030년까지 수출용 쌀을 생산하는 지역의 안정성과 효율성 및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쌀의 품종 개량과 재배기술 및 수확후 처리기술을 선진화함으로써, 베트남쌀의 품질과 안전을 개선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4. 최근의 쌀정책 주요내용⁶⁾

베트남의 쌀산업 정책은 농가소득 안정, 생산량 증대, 고품질 쌀 품종 개발, 쌀 수출 촉진 등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쌀 정책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산정책으로, 농업생산성 증대를 위하여 품종개량 연구 및 관개시설 정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벼농사를 위한 우량농지 확보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특히 종자 연구는 쌀 수출의 기초조건으로 수입국의 기호에 부응하는 쌀을 생산하려는 방침이다.

둘째, 공공비축정책으로, 식량안보 차원에서 전체 공급량의 약 15%를 비축한다는 방침이다. 베트남은 태풍 피해가 잦은 관계로 흉작에 대비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비축미를 저장하기 위한 창고 건설 및 보수에도 노력하고 있다.

셋째, 가격지지정책으로, 농업농촌개발부(MARD)와 식품협회(Vietnam Food Association)가 주관하고 있는데, 쌀 최대수확기 동안의 최소 가격지지가격(minimum support prices) 및 최소 수출가격 등을 수립하여 쌀 가격의 안정과 수출 진흥을 도모하고 있다. 수매업체들은 가격지지 프로그램에 의하여 쌀을 저장할 수 있도록 지정된 물량을 구매해야 한다.

넷째, 수출정책으로, 국영무역회사 외에 민간수출업체에 대한 자격 요건을 설정하여 업체를 관리하고 있다. 안정적인 수출을 위해서는 적정한 규모의 쌀을 생산하는 동시에 저장시설을 보유해야 한다. 수출업체의 관리는 쌀 수출 허가권이 있는 베트남식품협회(VFA)가 담당하고 있다.

6) 김종선 외(2019), “동남아 6개국(CLMVIP)의 쌀 산업과 국제개발협력사업 추진 방향”, 『KREI 농정포커스 제183호』을 편집 인용하였다.

<표 5> 베트남의 쌀산업 관련 정책(2019년)

정책 구분		주요 내용
생산 정책	생산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는 농지 지정을 통해 벼 생산면적 및 생산량 목표치를 설정함. 베트남 농지법에 따르면 쌀 생산을 위해 등록된 농지는 국토 할당량으로 인해 다른 작물을 재배할 수 없음. - 2014년 7.75백만ha에서 쌀이 생산되었으며, 2015년에는 26만ha의 논을 옥수수 재배를 위한 농지로 전환하도록 계획을 수립함.
	종자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는 전국의 쌀 연구소에서 실시된 특정 종자 연구 프로젝트를 위해 2013년에 약 300억 베트남 동(약 150만 달러)을 지원함. - 이러한 지원을 통해 국가 지원을 받는 쌀 종자 연구소에서는 베트남에서 개발되고 사용된 새로운 벼 종자의 약 4%를 생산하고 있음.
	가격지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베트남 식품협회(Vietnam Food Association)는 최대수확 시기의 생산비용과 30%의 이익 마진을 기준으로 쌀에 대한 최소 지지가격(Minimum Support Prices)을 책정함. - 2007~11년 기준 MSP는 2008/11 VND 3,500/kg(2010년 11월 기준 VND 5,000/kg)이었음. 가격지지 프로그램은 임시 저장을 위해 지정된 물량을 구매하도록 하고 있음. - 이 프로그램에 따라 구매한 벼는 일반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수출됨.
	관개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는 쌀 생산 관련 관개시설 등 인프라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음.
비축 정책	공공비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는 식량 안보를 위해 일정량의 공공비축량을 유지하고자 함. - 2014년 베트남 정부는 전체 쌀 공급량의 15%(쌀 50만 톤 상당)를 비축하였음. - 이러한 공공비축미 저장을 위하여 정부는 400만 톤의 쌀 저장 시설을 보수하고, 2009년 280만 톤 규모의 새로운 저장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투자에 착수하였음.
무역 정책	최소 수출가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소수출가격(MEP)은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해 수확량이 가장 많은 기간에 VFA(베트남 식품협회)에 의해 설정됨.
	수출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1년에 정부는 수출 자격을 갖추기 위해 최소 5,000톤의 쌀을 생산하며, 최소 용량 10톤의 저장 시설을 보유해야 한다는 수출 요건을 수립하였음. - 이 법령은 쌀 수출 허가권이 있는 베트남식품협회(VFA)에 의해 시행되며, 쌀 수출에 대한 각 구매 주문서는 VFA의 승인이 필요함.
	국영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SOE Vinafood 1과 Vinafood 2는 G2G 판매 등의 협상을 통해 수출하고 있음. 일단 협상이 이루어지면 VFA는 총 계약 규모를 개인 소유 및 국영 회사에 할당하고 있음.

자료: USITC(2015). 김종선 외(2019)에서 재인용.

5. 멧음말

베트남은 1990년대 들어 지속적인 쌀 생산성 증대를 통하여 빈곤 감소와 식량 안보 및 사회 안정에 이바지하였다. 현재 베트남의 쌀농업은 국민의 주식인 동시에 농촌지역을 유지하는 중요한 산업이고, 나아가 국가경제의 든든한 수출전략 품목이다. 베트남 정부는 최근에 쌀 생산량이 다소 정체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략적으로 쌀 수출을 꾸준히 증가시켜, 2020년에도 인도와 태국에 이어 세계 3위를 유지하고 있다.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MARD)는 쌀의 안정적 생산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품종 개량과 우량농지 확보 및 농업생산 기반정비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예컨대 메콩 삼각주 지역은 베트남에서 수출하는 쌀의 약 90% 정도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 적합한 내염성 벼 품종을 개발하고, 하천의 범람을 막는 관개시스템을 도입하여 쌀농업의 생산성을 크게 증가시켰다.

쌀의 품질 향상을 위한 시책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주요 수출 대상국인 필리핀, 인도네시아, 호주 등의 소비자가 선호하는 쌀을 생산하기 위하여 정부 주도로 수출용 쌀의 품종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재배농가에 자포니카쌀이나 프리미엄급 향미(Jasmine rice) 품종을 보급하여 고부가가치 쌀의 수출기반을 다져가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최근의 쌀 수출가격은 태국산이나 미국산 쌀보다 10% 이상 높은 가격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2018년에 발표한 쌀의 국가브랜드 “Gạo vietnam (베트남 쌀)”의 사용규칙이 관심을 끈다. 정부가 나서서 세계시장에서 베트남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브랜드의 확립을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베트남쌀 ‘ST25’는 2019년 개최된 ‘국제쌀콩쿠르’에서 1위를 차지하여 맛과 품질에서도 으뜸이라는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한편, 2020년에 지구촌을 급습한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국경보호 조치가 시행되면서 쌀을 주식으로 하는 아시아권에서 쌀 부족 현상이 나타났다. 최대 쌀 수입국인 중국이 사상 처음으로 인도에서 쌀을 수입하였는데, 베트남은 세계 시장의 쌀 부족을 전망하고, 수출량을 늘리기 위하여 국내 소비용으로 저렴한 인도쌀을 수입하기도 하였다.

금년 2021년에도 코로나 팬데믹이 계속되면서 베트남의 쌀 수출은 호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정부는 2020년에 체결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비롯한 세계 각국과의 FTA가 쌀 수출을 늘려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고문헌

- 김중선 외, 2019, “동남아 6개국(CLMVIP)의 쌀 산업과 국제개발협력사업 추진 방향”, 『KREI 농정포커스 제183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현근 외, 2019, 『베트남의 농업과 농식품 교역 동향』(해외농업시리즈 2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16, “베트남 쌀 생산유통 현황”, 『aT_베트남 쌀 조사자료(160511)』.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21, “2021년 1월 국제 쌀시장 동향”.
- 한국국제협력단(KOICA) ODA연구정보센터, 2019, 『베트남 농업』.
- 井上 莊太郎, 2018. “第1章 タイ - 主要品目と政策の動向”, 『主要国農業戦略横断・総合, プロ研資料 第7号』, 農林水産政策研究所.
- 大久保 文博, 2015, “ベトナム; コメの生産効率向上を”, 『エリアリポート, 2015年 8月号』, ジェトロ海外調査部.

관련 홈페이지

- 대한민국 외교부 국가/지역정보 <http://www.mofa.go.kr/www/nation/>
-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 <https://www.mard.gov.vn/>
- 베트남 통계청(GSO) <https://www.gso.gov.vn/>
- 베트남 뉴스 https://www.vinahanin.com/vietnam_news
- 구글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
- 네이버 나무위키 <https://namu.wiki/w/>